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321-352  
<https://doi.org/10.29212/mh.2018..109.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고려시대의 안시성 위치 인식과 당 태종 눈 부상설의 검토

김철웅\*

1. 머리말
2. 안시성 위치에 대한 인식
3. 태종의 눈 부상설에 대한 검토
4. 맺음말

## 1. 머리말

645년,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빌미로 고구려 침공을 단행하였다. 이 1차 고구려 침략에서 당은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은 안시성에서 막혀 여러 달을 지체하다가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태종은 성공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탄식하였다.<sup>1)</sup> 그리하여 안시성 전투는 후대에 회자되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예를 들면 김부식은 안시성 전투를 이끈 장수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겼다.<sup>2)</sup>

안시성에 대한 관심은 조선시대에 들어 고조되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안시성의 위치와 그 성주로 알려진 양만춘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특히 안시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 안시성의 위치 문제와 양만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up>3)</sup> 그런데 이들 연구는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전 시기의 인식을 규명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이에 안시성에 관한 고려시대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시성 문제에 대한 고려시대의 인식을 규명해보는 것은 뒤이어 전개된 조선시대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1)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 貞觀 19년 10월, “凡征高麗…新城建安馬蹕三大戰…上以不能成功 深悔之” 같은 내용이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년 10월조에 실려 있다.

2)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년 10월, “論曰 唐太宗聖明 不世出之君 除亂校比於湯武 致理幾於成康 至於用兵之際 出奇無窮 所向無敵 而東征之功 敗於安市 則其城主可謂豪傑 非常者矣 而史失其姓名 與揚子所云 齊魯大臣 史失其名 無異 甚可惜也”

3) 안시성의 위치와 성주 양만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일경, 「安市城은 어디에 있는가?」, 『건축역사연구』 38, 한국건축역사학회, 2004 ; 최남희, 「고구려 지명 安市城의 재고찰」, 『국어교육연구』 36, 2004 ; 이승수, 「燕行路上的 공간 탐색, 鳳凰山城 :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103, 2006 ; 김낙기, 「17~19세기 고구려 안시성 인식과 상상배」, 『역사민속학』 42, 2013 ; 김세호, 「연행을 통해 되살아난 안시성(安市城)과 梁萬春/楊萬春」, 『한문학보』 31, 우리한문학회, 2014 ; 남재철, 「安市城主의 姓名 '양만춘' 考證 1」, 『東아시아古代學』 35, 2014. 중국의 연구 성과로는 閻万章, 「汉代安市县城与高句丽安市城非一地考」, 『辽宁省博物馆学术论文集』 1, 1984 ; 王咏梅·阎海·崔德文·郭德林, 「关于安市城址的考察与研究」, 『北方文物』 2000-2, 营口市博物馆, 2002 ; 李嵩岩, 「英城子考古纪实——兼谈安市城大战的形成与经过」, 『鞍山社会科学』 2004-1, 2004 ; 刘炬, 「试论“安市城主”」, 『东北史地』 2011-5, 2011 ; 张士尊·苏卫国, 「高句丽“安市城”地点再探」, 『鞍山师范学院学报』 2013-3 등이 있다. 그리고 안시성 전투에 대한 연구는 서영교, 「고구려의 대당전쟁(對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 : 安市城전투와 薛延陀」, 『軍史』 49, 2003 ; 서영교, 「연개소문의 철혈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 『동북아역사논총』 44, 2014 ; 서영교, 「馬蹄山 전투와 安市城」, 『東國史學』 58, 2015 등이 있다.

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안시성에 대한 연구는 안시성 전투, 안시성의 위치, 성주 양만춘 등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전투 중 당 태종의 눈 부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 중 본고는 안시성에 관한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안시성 위치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시대에는 안시성 위치에 대해 평안도 용강현, 봉황산성, 개주 동북 70리 등의 견해가 제기되었으며<sup>4)</sup> 현재는 대체로 해성 영성자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sup>5)</sup> 안시성 위치에 대해 조선시대 사람들은 초기에는 대체로 압록강 이남인 평안도 용강현 오석산으로, 나중에는 요동 지역(개주, 봉황산성)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안시성의 위치를 어느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을까. 고려시대의 안시성 위치 인식을 통해 안시성 위치 비정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어떻게 변화한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이색(1328~1396)의 시 「정관음」에 언급되어 있는 “현화낙백우(玄化落白羽)”, 즉 안시성 전투에서 발생한 당 태종의 눈 부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색의 ‘현화낙백우’설은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안시성 전투에 대한 대표적인 기억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이색의 이러한 서술은 문학(시)이라는 측면에서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즉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것이

4) 예를 들면 조선초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안시성이 평안도 용강현 오석산에 있다고 하였고, 안시성이 개주 부근이라는 『대명일통지』의 설도 소개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2 平安道 龍岡縣 城郭, “安市城<在烏石山 距縣治五里 險固無比…世以此城爲唐太宗所親征不下者…今按大明一統志 安市廢縣 在蓋州衛東北七十里 漢置 唐太宗 攻之不下 薛仁貴 白衣登城即此…或別安市城 未可知也” 그리고 안정복(1712~1791)은 奉天府 海城縣, 蓋州 동북 70리, 용강현, 鳳凰城 등을 거론하고 있다. 『東史綱目』 附 卷下 地理考 「安市城考」 참조.

5) 島田好, 「高句麗の安市城の位置に就いて」, 『歴史地理』 49-1, 1927 ; 金鎭麟, 『東北通史』, 1941 ; 동북아역사재단 옮김, 『東北通史』 하, 2007, 491~493쪽 ; 서영교, 「駐蹕山 전투와 安市城」, 『東國史學』 58, 2015, 58쪽.

다. 이에 그의 주장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안시성 전투를 대표하는 이 기억을 검토해 봄으로써 안시성 전투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2. 안시성 위치에 대한 인식

고구려 멸망과 신라 중심의 통일로 인해 고구려사에 대한 자료는 많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 말에 벌어진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고구려 멸망으로 인해 고구려 측의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 통일 이후 김대문, 최치원 등이 역사서를 편찬하였지만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안시성 전투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최치원이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을 언급한 것이 있어<sup>6)</sup> 신라인들도 안시성 전투의 승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 전투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구당서』, 『신당서』 및 『자치통감』 등 주로 중국 자료를 이용하여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과 안시성 전투를 기록하였다.<sup>7)</sup> 아마도 고려

6) 『三國史記』卷46 列傳6 崔致遠, “其文集 有上太師侍中狀云…貞觀中 我唐太宗皇帝 親統六軍 渡海蒸行天罰 高麗畏威請和 文皇受降迴蹕…有文集三十卷 行於世”; 『東文選』 권47 崔致遠,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昔貞觀中 太宗文皇帝手詔示天下曰 今欲巡幸幽薊 問罪遼碣 盖爲勾麗獠俗 干紀亂常 遂振天誅 肅清海徼…惟彼勾麗 今爲渤海”; 「與禮部表尙書摺狀, “昔者勾麗衛國 負險驕盈 殺主虐民 違天逆命 太宗文皇帝 震赫斯之盛怒 除蠶介之群兇 親率六軍 遠巡萬里 龔行天罰 靜掃海隅 勾麗既息狂飈 劣收遺燼 別謀邑聚 遽竊國名 則知昔之勾麗 則是今之渤海”

7)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8년 4월, “論曰…柳公權小說曰 駢蹕之役 高句麗與蘇鞞合軍 方四十里 太宗望之 有懼色…新舊書及司馬公通鑑 不言者 豈非爲國 諱之者乎”

사람들은 신라에서 전승된 자료와 중국 자료 등을 통해 안시성 전투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시성 전투에 대한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정관정요』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관정요』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중에서 안시성 전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자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이다. 『정관정요』에는 고구려 관련 기사로 모두 14건이 실려 있는데<sup>8)</sup>, 그 중 안시성에 대한 것은 「충의」편에 실려 있다.<sup>9)</sup>

『정관정요』는 당 현종(712~756) 때에 오궁(670~749)이 당 태종(626~649) 때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sup>10)</sup> 당 황제들은 『정관정요』를 정치 지침서로 삼아 즐겨 읽었는데, 신라에는 8세기 경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1)</sup> 『정관정요』는 고려에서도 널리 통독되었다. 즉 고려 광종 원년(950)에 『정관정요』가 확인되며,<sup>12)</sup> 최승로는 성종 원년(982)에 올린 시무 28조에서 『정관정요』를 언급하고 있다.<sup>13)</sup> 덕종 2년(1033) 12월의 판에서는 『정관정요』를 인용하였다.<sup>14)</sup> 더구나 고려에 정요업(政要業)이 있었음이 확인된다.<sup>15)</sup>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정관정요』는 고려초부터 유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김영문 역, 『정관정요』, 글항아리, 2017, 19쪽.

9) 『貞觀政要』 제5 論忠義, “貞觀十九年 太宗攻遼東安市城 高麗人眾皆死戰 詔令裨薩延壽 惠真等降·詔江夏王道宗 築土山 以攻其城 竟不能剋 太宗將旋師 嘉安市城主 堅守臣節 賜絹三百匹 以勸勵事君者”

10) 『貞觀政要』 序, “綴集所聞 參詳舊史 撮其指要 舉其宏綱…名曰貞觀政要”

11) 오영섭, 「최승로 상서문의 사상적 기반과 역사적 의의」, 『태동고전연구』 10, 1993, 237~238쪽.

12) 『高麗史』 卷2 광종 원년 정월, “大風拔木 王問禳災之術 司天奏曰 莫如修德 自是常讀 貞觀政要”

13) 『高麗史』 卷93 열전6 최승로, “承老上書曰·竊見 開元史臣吳兢 撰進貞觀政要 欲勸玄宗勤修太宗之政”

14) 『高麗史』 卷84 지38 형법1 공식 피마식, “德宗二年十二月 判 政要曰 三品以上六尚書九卿 遇親王 不合下馬 親王班 皆次三公下”

15) 『高麗史』 卷73 지27 選舉1 과목1, “文宗三十三年六月 判 三禮·何論·政要業監試 於諸業畢試後 國子監與本業員 試取”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종 11년(1116)에 고려에서 『정관정요』를 주해하였다는 사실이다.<sup>16)</sup> 따라서 『정관정요』를 통해 고려의 지식인들은 안시성 전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안시성의 위치에 대해 『정관정요』 「충의」편에서 ‘요동안시성’이라고 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요동은 넓게는 요하의 동·서 지역을, 좁게는 요하의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sup>17)</sup> 그런데 당시 고구려는 당과 요하를 경계로 하였으므로<sup>18)</sup> 『정관정요』를 읽은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관정요』의 유행은 고려말까지 이어졌고 조선 시대에도 지속되었으므로<sup>19)</sup> 고려시대 내내 안시성이 요하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정관정요』에는 안시성 전투에 대해 기술하면서 단지 ‘요동안시성’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안시성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었다. 『정관정요』의 기록보다 자세한 것은 두우(735~812)의 『통전』(8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전』에는 안시성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요수는 말갈국 서남산에서 근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안시에 이른다. … 정관 … 19년에 태종이 친정하여 요수를 건넜다. 4월에 이적이 개모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 또 요동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 6월에 백암성을 함락하였다. …

16) 『高麗史』 卷14 예종 11년 12월 갑신

17) 『遼東志』 卷1 郡名, “遼東<秦名 韻書 遼遠也 以其遠在九州之東 故名 又兼遼西而言 其分遼東遼西者 以其界乎 遼河之東西也”

18)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西北渡遼水 至于營州”; 『三國史記』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정일, “帝命司農丞相里玄奘 賚璽書賜王…玄奘曰…今遼東諸城 本皆中國郡縣 中國尚且不言 高句麗豈得必求故地”

19) 『高麗史』 卷109 열전22 諸臣 박충좌, “忠穆時 拜贊成事 入侍書筵 講貞觀政要”; 『高麗史』 卷133 열전46 우왕 3년 10월, “政堂文學權仲和侍書筵 講貞觀政要”; 『高麗史 節要』 卷34 공양왕 2년 1월, “王欲覽貞觀政要…講讀官尹紹宗進曰…唐太宗 不足取也 請讀大學衍義 以闡帝王之理”; 『太祖實錄』 권15 태조 7년 10월 丁未, “上坐經筵 令侍講官裴仲倫 講貞觀政要”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안시성으로 나아갔다. … 고구려가 … 15만을 동원하여 안시성을 구원하였는데 … 대파하였다. … 이에 행차한 산을 주필산이라 하였다. … 오래도록 이기지 못하자 9월에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sup>20)</sup>

『통전』에서 안시는 대요수, 즉 요하에 있으며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친정(親征)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요수를 건너 당군은 개모성,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 등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안시성의 위치는 요하의 동쪽 지역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통전』을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sup>21)</sup> 그리고 고려후기의 민지는 『통전』에 있는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 부분을 보고 일본 정벌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sup>22)</sup> 따라서 『통전』을 통해 고려의 지식인들은 안시성이 요하의 동쪽에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정관정요』에는 ‘요동안시성’이라 하여 안시성이 요동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전』에 대요수가 남쪽으로 흘러 안시에 이른다고 하였고, 당 태종은 요수를 건너 안시성을 공격하

20) 『通典』 卷186 邊防2 東夷下 高句麗, “其大遼水 源出靺鞨國西南山 南流 至安市…馬訾水 一名鴨綠水…西與一水合 則靺鞨水也 二水合流 西南至安平城 入海…貞觀…十九年 太宗親征遼 四月 李勣攻拔蓋牟城…又攻遼東城拔之…六月 攻拔白巖城…遂引軍次安市城…高麗…十五萬來援 於安市城東南八里 依山爲陣…大破之…延壽惠眞…來降…因命所幸山爲掛單山…遂移軍於安市城南 久不剋 九月 遂班師…歷於城下而旋 城主昇城拜辭 太宗嘉其堅守 賜緡百疋 以勵事君者”

21)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新羅, “新羅疆界 古傳記不同 杜佑通典云 其先本辰韓種 其國在百濟高麗二國東南 東濱大海”; 『삼국사기』 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 “按通典云 朱蒙以漢建昭二年 自北扶餘東南行 渡溡述水 至紇升骨城居焉 號曰句麗 以高爲氏”; 『三國遺事』 卷1 紀異1 古朝鮮, “唐喪矩傳云 高麗本孤竹國 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謂玄菟樂浪帶方 北帶方 通典亦同此說”; 『三國遺事』 卷1 紀異1 靺鞨, “通典云 渤海卒栗末靺鞨至其酋柁榮立國自號震旦”

22) 『高麗史』 卷107 列傳20 諸臣 閔貞, “元宗朝 攬魏岳…忠宣以世子如元 濱與阿臣從之…後元欲復征日本 令本國造戰艦…濱偶閱杜氏通典 及唐太宗征高麗 魏徵諫曰 高麗如石田 得之無益 乃示僉院共君祥因語曰 倭之於大元 豈啻若唐之於高麗乎 況往歲之役 本國民力竭矣 今若不寢 乃吾民何 惟公圖之”

였다. 이 두 책은 고려시대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으로 이를 통해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의 동쪽 지역에, 구체적으로는 요하 하류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고려시대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동에 있었던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설계두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그는 요동에 이르러 주필산에서 싸우다 죽었다.<sup>23)</sup> 주필산이 요동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안시성도 요동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필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안시성 함락이 여의치 않자 고연수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태종에게 안시성 공격을 포기하고 오골성을 치고 압록수를 건너 평양으로 가자고 건의하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군의 진군로는 안시성→오골성→압록수→평양의 경로가 된다.<sup>24)</sup> 결국 오골성은 압록강과 가깝고 안시성은 요하와 가까운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본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와 가까운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고려후기에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의 위치를 어디로 인식하고 있었을까. 먼저 목은 이색을 보면 그는 『구당서』, 『신당서』를 통해 안시성 전투를 잘 알고 있었다. 이색은 「독당사」라는 시에서, “궐 아래 넘어뜨린 비를 다시 세우고 요동에서는 화살 비껴 잡고 돌아갔네”라고 하여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 실패를 언급하였다.<sup>25)</sup> 그리고 「만숙유림관」라는 시에서는 설인귀를, 바로 이어지는 시 「정관음 유림관작」에서는 안시성주에 의해 당

23) 『三國史記』 권47 列傳7 薛蘭頭, “新羅衣冠子孫也…武德四年辛巳 潛隨海舶入唐 會太宗文皇帝親征高句麗 自薦爲左武衛果毅 至遼東 與麗人戰焉 躡山下 深入疾鬪而死 功一等”

24)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년 5월, “高延壽高惠真 請於帝曰…安市人顧惜其家 人自爲戰 未易猝拔…烏骨城稱薩 老老不能堅守 移兵臨之 朝至夕克 其餘當道小城 必望風奔潰 然後取其資糧 鼓行而前 平壤必不守矣 羣臣亦言…併力拔烏骨城 度鴨淥水 直取平壤 在此舉矣”

25) 『牧齋詩藁』 卷2 「讀唐史」, “闕下仆碑立 遼東撻鬻歸 朝來讀唐史 忠諫至今稀”



태종이 눈을 잃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sup>26)</sup> 이처럼 이색은 유림관에서 두 편의 시를 지어 당 태종과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고 있다. 즉 이색은 안시성 전투가 유림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색은 「만숙유림관」이라는 시에서, “주민들은 아직도 설 장군을 말하는구나”<sup>27)</sup>라고 하였다. 설 장군은 설인귀(614~683)로 안시성 전투에서 공을 세워 유격장군이 되었다. 당 태종은 그를 높이 평가하여 “짐은 요동을 얻어 기쁜 것이 아니라 경을 얻어서 기쁘다.”라고 하였다.<sup>28)</sup> 이 시에 따르면 고구려의 고토였던 요동 지역에 고구려와 당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다음은 「정관음 유림관작」이다. 유림관은 ‘번·한(蕃漢)’, ‘한·요(漢遼)’의 경계로 여겨졌다.<sup>29)</sup> 유림관은

26) 『牧隱詩彙』卷2 「晚宿榆林關, “居人猶說薛將軍”; 「貞觀吟 榆林關作, “那知玄花落白羽 鄭公已死言路澁 可笑豐碑驟復立” 이 시는 충정왕 2년(1350)에 이색이 연경에서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 것이다. 이때의 여정을 『牧隱詩彙』 권2의 시편들을 통해 보면, 연경(「出鳳城」)→通州(「通州早發」)→三河縣(「早行」)→漁陽縣(「漁陽縣」)→玉田(「玉田途中」)→平州(「馬上逢鄉人王桂進士」)→盧龍縣(「望道者山」)→榆林關(「晚宿榆林關」, 「貞觀吟 榆林關作」)→南新店(「南新店」)→瑞州(「瑞州」)→板橋驛(「板橋」)→海州(「海州」)→압록강(「渡鴨綠」) 등으로 확인된다. 「出鳳城」에, “皇帝龍飛十八春”라 하였으니, 황제는 원의 順帝(1333~1370)이며 즉위 18년은 1350년이다. 이색은 1348년 3월에 대도로 가 국자감에 입학하여 3년 가량 지내다가 1350년 봄에 귀국하였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원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주,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 57~58쪽.

27) 『牧隱詩彙』卷2 「晚宿榆林關, “居人猶說薛將軍”

28) 『舊唐書』卷83 列傳33 薛仁貴, “太宗親征遼東…大軍攻安地城 高麗莫離支 遣將高延壽高惠真 率兵二十五萬來拒戰…仁貴自恃驍勇 欲立奇功 乃異其服色 著白衣 握戟腰鞬 張弓 大呼先入…大軍乘之 賊乃大潰…擢授游擊將軍雲泉府果毅…太宗謂曰…朕不喜得遼東 喜得卿也”

29) 『新唐書』卷40 志20 地理3, “平州北平郡 有臨渝關…有碣石山”; 『資治通鑑』卷198 唐紀14 太宗 正觀 19년 10월 丙辰, “上…入臨渝關…漢遼西郡有臨渝縣 唐志 營州有渝關守捉城 杜佑曰 臨渝關 在平州盧龍縣城東百八十里…師古曰渝 音喻”; 『許亢宗行程錄』, “營州 古柳城…離州 東行六十里 至榆關…出榆關以東 山川風物與中原殊異”; 『文獻通考』卷315 輿地考1, “平州之東 乃榆關 榆關之東 乃金人之來路 凡此數矣 蓋天所以限蕃漢也”; 『文獻通考』卷316 輿地考2 平州, “殷時孤竹國…領縣三 治盧龍

평주에 속해 있었는데, 중원에서 보면 유림관부터 이른바 새외로 이곳에서 요서, 또는 광의의 요동 지역으로 들어간다.<sup>30)</sup> 이색은 유림관에 머물며 새외, 즉 요동 지역으로 나가기 전에 안시성 전투를 상기하고 있다. 이색이 유림관에서 당 태종과 안시성 전투를 회고한 것은 안시성에서 막혀 철수하게 된 당 태종이 바로 임유관(유림관)을 통해 유주로 들어왔기<sup>31)</sup> 때문이다. 이색은 안시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안시성이 새외 지역, 즉 광의의 요동 지역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색에 비해 포은 정몽주는 안시성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몽주는 공민왕 21년(1372), 우왕 10년(1384), 우왕 12년(1386) 등 모두 3차례 명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당시 포은의 사행로는 요동을 경유하여 발해를 건너 산둥반도를 거쳐 남경까지 왕복하는 노선이었다. 정몽주의 시를 보면 요동, 요하, 개주, 웅악, 금주, 복주 등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sup>32)</sup> 그리고 1384년에 정몽주와 함께 갔던 정도전의 시에는 요동, 금주, 여순, 발해, 등주 등의 지명을 나와 있다.<sup>33)</sup> 따라서 정몽주의 사행은 압록강, 요양, 여순, 발해를 지나 등주에 이르고 남경에 이르는 경로를 왕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몽주는 사행 중에 역사적 의미가

盧龍<朔巴如縣 有碣石山…漢遼爲界 臨榆關 在縣城東一百八十里…>

30) 『史記』卷115 朝鮮列傳, “元封二年 漢使涉何 論右渠 終不肯奉詔 何去至上 臨貝水 使御車殺送何者 朝鮮裨王長 卽渡馳入塞到馳入塞入平州榆林關也”; 『新五代史』卷17 晉家人傳5 高祖皇后李氏, “自幽州行十餘日 過平州 出榆關…又行七八日 至錦州…又行五六日 過海北州…又行十餘日 渡遼水 至渤海國鐵州”

31) 『舊唐書』卷3 太宗下, “貞觀十九年…至九月不克 乃班師 冬十月丙辰 入臨榆關…十一月辛未 幸幽州”

32) 『圃隱集』卷1 「題遼東麗鎮無憂」, 「金州韋指揮宅畫鷹走筆」, 「復州館中井」, 「復州驛夜雨」, 「復州 食櫻桃」, 「熊嶽古城」, 「宿蓋州」, 「蓋州雨中 留待落後人」, 「蓋州館柳」, 「遼可曹通」, 「渤海古城」, 「渤海懷古」

33) 『三峯集』卷2, 「金州館」, 「旅順口驛中秋」, 「蓬萊閣<按閣在登州海上 秦始皇候神僊處>」, 「贈山東都司」, 「登州待風」, 「渤海舟中次鄭評理<夢周>韻」

있는 지역을 지날 때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시를 지었다. 정몽주는 「안시성회고」, 「이적전처(李勣戰處)」, 「숙개주(宿蓋州)」 등에서 당의 고구려 침략을 언급하였다.

먼저 정몽주는 「안시성회고」라는 제목의 시에서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과 안시성을 회고하였다.

황금 궁전 위에 앉아 수의(垂衣)하였어도  
백전 영웅은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였네  
당 태종이 친히 정벌하던 날을 생각해보니  
풍부가 수레에서 내린 때와 같았으리.<sup>34)</sup>

정몽주는 이 시에서 당 태종을 풍부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당 태종에 대한 조롱의 시선이 담겨져 있다.<sup>35)</sup> 풍부는 『맹자』 「진심」장에 나오는 인물이다. 풍부는 호랑이를 잘 잡았는데 나중에 선량한 선비가 되었다. 어느 날 풍부가 들에 나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지 못하자 풍부에게 호랑이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풍부가 팔을 휘두르며 수레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기뻐하였지만 선비들은 그를 비웃었다.<sup>36)</sup> 이처럼 풍부는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려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유한다. 정몽주는 이 시에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구려 정벌을 단행하였다가 결국 실패하고 후회하였던 당 태종이 풍부와 같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면 「안시성회고」 시는 어디에서 지은 것일까. 이색은 「서강남기행시고후」에서 정몽주의 사행시를 시사(詩史)라고 표현하

34) 『圃隱集』 卷1 「安市城懷古」, “黃金殿上坐垂衣 百戰雄心不自持 想見太宗親駕日 宛如馮婦下車時”

35) 이승수, 「고려말 對明 使行的 遼東半島 경로 고찰」, 『漢文學報』 20, 2009, 27쪽.

36) 『孟子』 盡心, “晉人有馮婦者善搏虎 卒爲善士 則之野 有衆逐虎 虎負嵎 莫之敢撓 望見馮婦 趨而迎之 馮婦攘臂下車 衆皆悅之 其爲士者 笑之”

였다.<sup>37)</sup> 그리고 정도전은 정몽주가 사행 중에 지은 시들이 ‘그 일을 되새기고 그 땅을 생각하매 시로써 가히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38)</sup> 즉 사행로 곳곳에는 유적지가 많았는데, 정몽주는 그 감회를 담아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의 「안시성회고」 시는 안시성을 상기할만한 지역, 즉 요동을 지나면서 짓게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정몽주가 안시성을 회고한 곳은 개주(蓋州)였을 것이다.<sup>39)</sup>

정몽주는 「안시성회고」 시 외에도 「이적전처」, 「숙개주」 등의 시에서 당의 고구려 침략을 언급하고 있다. 「이적전처」에서 이적이 세 차례나 요하를 건너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참여하였으며, 결국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 갔다고 하였다. 이는 사실과 잘 부합하는 내용이다.<sup>40)</sup> 다음은 개주(蓋州)에서 머물며 지은 시의 내용이다.

37) 『圃隱集』卷4 「書江南紀行詩藁後」, “今讀鄭五宰江南行藁 田橫韓信李績等詩 感吾之心多矣 陳教諭熊鷹詩 豪放不似和韻 至於歌詠大朝閒暇之氣像 陳述小邦傾嚮之精誠 所謂詩史也”

38) 『三峰集』卷3 「圃隱奉使藁序<丙寅>」, “皇明有天下 四海同文 先生三奉使至京師·渡渤海 登蓬萊閣 望遼野之廣遠 視海壽之洶湧 興懷敘言 不能自已·夫城郭宮室之巨麗 人物之繁華 無不備載 採詩者以此陳於太史氏 其爲皇明之雅無疑矣·今誦其詩 卽其事 想其地 宛然在目 詩可以觀 不其信歟”

39) 이승수, 「燕行路上的 공간 탐색, 鳳凰山城 :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103, 2006, p.371~372.

40) 『圃隱集』卷1 「李勣戰處」, “三渡遼河廠始摧 當時戰骨亦哀哉 君王竟受窮兵責 好把渠家富貴來” 이적은 모두 645년의 1차 고구려 침공 이래 모두 세 차례 요하를 건너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668년에 결국은 신라군과 함께 평양성을 함락하고 보장왕을 비롯한 고구려의 지배층을 포로로 데리고 돌아갔다. 『舊唐書』卷67 列傳17 李勣, “貞觀·十八年 太宗將親征高麗 授勣辽東道行軍大總管 攻破盖牟 辽东白崖等数城·总章元年 命勣为辽东道行軍總管 率兵二万·至于平壤城·克其城 虜其王高藏及男建男产 裂其诸城 并为州县 振旅而旋” ; 『資治通鑑』卷198 唐紀14 貞觀 21年, “二月·上将复伐高麗·以太子詹事李世勣为辽东道行軍大總管·五月·李世勣军既渡遼 历南苏等数城 高丽多背城拒战 世勣击破其兵 焚其罗郭而还”

당 태종이 몸소 싸움하던 곳  
 개모성이었다고 전해 오는데  
 흥망이 몇 번인지 알 수 있으랴  
 올라와 보니 시름을 금치 못하겠네  
 백성은 예전에 흩어져버렸고  
 성은 지금 수축하였네  
 성조에서 천하를 통일했으니  
 옛 풍속을 근심할 것 없으리рода.<sup>41)</sup>

정몽주는 개주가 당 태종이 친히 전투하던 곳이라고 하면서 이곳이 개모성이라고 전해온다고 하였다. 당은 개모성을 함락하고 개주라 하였다. 그런데 개모성을 함락한 것은 당 태종이 아니라 이적이었다. 개모성 전투가 있을 때 태종은 요하도 건너지 못한 상태였다.<sup>42)</sup> 그러면 정몽주는 왜 개주가 태종이 직접 싸운 곳이라고 했을까. 정몽주가 개주에서 태종이 직접 싸운 곳이라고 한 이유는 안시성 때문일 것이다. 개주 동북쪽에 안시성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 정몽주는 개주에 머물며 여기가 태종이 직접 싸운 곳이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사행로가 개주를 지나고 있고, 개주는 안시성이 있었던 곳으로 비정되었기 때문이다.

① 진주는 … 본래 고구려의 개모성이다. … 발해가 고쳐 개주로 삼았고 또 진주로 고쳤다. … 통현은 건안현이다. … 철주는 … 본래 한의 안시현인데 고구려가 안시성으로 삼았다. … 발해가 주를 두었다. … 관할 현은 탕지현이다.<sup>43)</sup>

41) 『圃隱集』 卷1 「宿盖州」, “唐帝親臨戰 相傳說盖牟 廢興知幾遍 登覽不禁愁 民自往時散 城從今日修 盛朝家四海 遺俗可無憂”

42) 『舊唐書』 卷3 本紀3 太宗下 정관 19년, “三月壬辰 上發定州…夏四月癸卯 誓師于幽州城南…癸亥 遼東道行軍大總管英國公李勣 攻盖牟城 破之 五月丁丑 車駕渡遼” ; 『舊唐書』 東夷列傳 高句麗, “貞觀十九年…夏四月 李勣軍渡遼 進攻盖牟城 拔之…以其城置盖州 五月…李勣進軍於遼東城 帝次遼澤”

43) 『遼史』 卷38 志8 地理志2 東京道 東京遼陽府, “辰州 奉國軍節度 本高麗盖牟城 唐太宗會李世勣 攻破盖牟城 即此 渤海改為盖州 又改辰州…統縣一 建安縣…鐵州 建武軍刺史 本漢安市縣 高麗為安市城 唐太宗攻之不下 薛仁貴白衣登

- ② 개주는 … 본래 고구려의 개갈모성이고, 요의 진주이다. … 현이 넷이다. … 탕지현<요의 철주 탕지현이다.> … 건안현 … 수암현, 웅악현. 44)
- ③ 개주는 … 처음에 개주라 하였다가 지원 6년에 합쳐 동경지군으로 삼았고 웅악현과 탕지현을 합하여 건안현에 편입하였다. 8년에 또 건안현을 합쳐 본주로 편입하였다. 45)
- ④ 안시폐현<개주위 동북 70리에 있다. 한 때에 설치하였고 당 태종이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설인귀가 백의로 성에 올랐다는 곳이다. 발해가 철주를 설치하였고, 금은 탕지현이라고 고쳐 개주에 소속시켰으며, 원 때에 없었다.>46)

①의 『요사』(1344)에 의하면 요의 진주는 고구려의 개모성이며 발해 때에 개주라 하였으며, 통현은 건안현이었다. 그리고 요의 철주는 고구려의 안시성으로 관할 현은 탕지현이었다. ②의 『금사』(1344)에서는 건안현과 탕지현 등 모두 4개 현이 개주에 속해 있었다고 하였다. 원 시기에는 이들 현을 합쳐서 개주로 삼았다(③). 이처럼 안시성은 원래 한의 안시현으로 요 때는 철주였다가 금과 원 시기에는 개주에 포함되었다. 『대명일통지』(④)에서는 안시폐현, 즉 안시성이 개주위 동북 70리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원·명 시기에는 안시성을 개주 일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정몽주는 「안시성회고」와 「숙개주」 시에서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고 있다. 이 두 시는 개주에서 지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원·명 시기에 개주는 안시성이 있었던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몽주도 안시성이 개주에 있었

城 卽此 渤海置州…統縣一 湯池縣”

44) 『金史』 卷24 志5 地理上 東京路, “蓋州…本高麗蓋葛牟城 遼辰州 明昌四年罷曷蘇館 建辰州遼海軍節度使 六年 以與陳同音 更取蓋葛牟為名…縣四…湯池<遼鐵州建武軍湯池縣>…建安…秀巖…熊岳”

45) 『元史』 卷59 志11 地理2 遼陽等處行中書省, “蓋州…初爲蓋州路 至元六年 并爲東京支那 并熊岳湯池二縣 入建安縣 八年 又并建安縣 入本州”

46) 『大明一統志』 卷25 遼東都指揮使司 古蹟, “安市廢縣在蓋州衛東北七十里 漢置 唐太宗攻之不下 薛仁貴白衣登城卽此 渤海置鐵州 金改爲湯池縣屬蓋州 元省”

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즉, 정몽주가 안시성을 개주 일대로 이해한 것은 원대에 형성된 인식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안시성=개주’설은 『대명일통지』에 반영되었다. 『대명일통지』에서는 원때의 자료보다 더 구체적으로 안시성이 개주위 동북 70리에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송인도 사행을 위해 개주를 지나면서 당과 고구려 전쟁을 회고하였다. 이송인은 「개주」라는 시에서 당 태종을 회고하고 있다.

긴 하천 방초에는 개었다 비 내리고  
기름진 들판의 곡식은 풍년을 예고하네  
그야말로 주민들이 성덕을 그리워하는데  
文皇은 무슨 일로 황량한 곳까지 이르렀나.<sup>47)</sup>

이송인은 개주에 머물며 이 시를 지었다. 이송인은 우왕 12년(1386) 12월에 명에 사신으로 갔다. 그는 이듬해 남경을 떠나 등주, 사문도, 개주, 정요위 등을 거쳐 귀국하였다.<sup>48)</sup> 여정 중에 이송인은 개주에서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을 회상하였다. 주민들은 성덕을 그리워하는데, 당 태종은 황량한 개주까지 행차하였다는 것이다. 이송인이 ‘성덕(盛德)’과 ‘황추(荒陬)’를 대비한 것은 안시성을 공격하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철수하였던 당 태종을 비판한 것이다. 즉 성덕에 걸맞지 않게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나서 결국은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송인이 개주에서 당 태종을 회고한 것은 정몽주와 마찬가지로 안시성을 개주를 인식

47) 『陶隱集』卷2 「蓋州」, “書生驅馬儘悠悠 好向郵亭一日留…正是居民懷盛德 文皇何事到荒陬” 文皇은 당 태종이다. 당 태종의 시호가 文武大聖皇帝이다.

48) 『陶隱集』卷2 「丙寅十二月十六日赴京師<此下八首出奉使錄>」, 「元日奉天殿早朝」, 「登州蓬萊閣感懷」, 「留沙門島奉呈同行評理相君」, 「蓋州」, 「定遼衛」, 「謁箕子祠」, 「浮碧樓次韻錄呈巡問令公」

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원 때의 문헌들은 안시성을 개주에 비정하였다. 이러한 원 시기의 인식에 따라 고려후기의 문인 관료들은 안시성이 개주 지역에 있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요동 지역을 거쳐 갔던 고려 사람들은 당과 고구려의 전쟁, 그리고 안시성 전투를 상기하였다. 이색은 유림관을 지나 요동 지역에 들어가면서, 정몽주와 이숭인은 요하 동쪽의 개주에서 당 태종과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였다. 안시성 위치에 대해 이색이 새외의 요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정몽주와 이숭인은 구체적으로 개주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안시성은 조선시대에 들어 평안도 용강현으로 비정되었다. 용강현의 성곽은 고려 태조 2년에 처음으로 수축되었으며 용강성으로 불렸다.<sup>49)</sup> 조선 초에는 용강산성이라 하였는데<sup>50)</sup>,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비로소 안시성이라고 하였다.<sup>51)</sup> 『동국여지승람』 서문에, 고구려의 영역은 남쪽으로는 한강, 서북으로는 요하를 넘었다고 하였다.<sup>52)</sup> 그러면서도 안시성을 압록강 이남인 평안도 용강현에 비정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안시성을 용강현에 비정한 것은 세전(世傳)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김종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대해 속언(俗諺)과 견문이 포함되

49) 『高麗史』 卷82 지36 병2 城堡, “太祖二年 城龍岡縣 一千八百七間 門六 水口一”; 『高麗史節要』 卷16 고종 22년 8월, “陷龍岡咸從三登等城 執其守令”

50) 『世宗實錄』 지리지 용강현, “山城 在縣北<… 城內泉十川一…有軍倉>”; 『文宗實錄』 권8 문종 1년 7월 20일 丙辰, “議政府據兵曹呈啓…龍岡山城 則并置本邑國庫”; 『端宗實錄』 권2 단종 즉위년 8월 10일 庚午, “議政府據戶曹呈啓…甌山倉移于龍岡山城”

5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 龍岡縣 城郭, “安市城<在烏石山 距縣治五里 險固無比 石築 周一萬二千五百八十尺 內有十泉合流 有軍倉 世以此城爲唐太宗所親征不下者…>”

52)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勝覽序, “高句麗 東至海 南至漢 西北踰遼河…成化紀元之十七年蒼龍辛丑四月下浣…徐<居正>…謹序”



어 있다고 비판하였다.<sup>53)</sup> 용강현을 안시성에 비정한 것은 바로 속언에 따른 것이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안시성 비정이 ‘세전’, ‘국인(國人)의 말’<sup>54)</sup>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국인’이 안시성을 평안도에 비정한 것은 고구려의 영역을 압록강 이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영역이 압록강 이남이라는 인식은 고려후기에 등장하여 조선 초까지도 이어졌다.<sup>55)</sup> 그리하여 조선초기에 안시성이 평안도에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갔다.<sup>56)</sup> 이를 반영한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이었다. 그렇지만 점차 안시성이 요동에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명·청 시기에 조선의 사신들이 요동을 지나면서 안시성을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안시성이 요동 지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평안도에 있었는지에 대한 위치 논쟁은 조선시대 내내 계속되었다.<sup>5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시성의 위치에 대해 『정관정요』에 처음으로 요동에 있다고 서술하였는데, 『통전』에서는 안시성의 위치를 조금 구체적으로 요수(요하) 하류로 보았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 동쪽 부근

53) 『新增東國輿地勝覽』跋, “今是編之成 出於俗諺見聞採摭之餘 而去取芟定 又未得其當…金宗直…謹跋”

54) 『新增東國輿地勝覽』卷52 平安道 龍岡縣 城郭, “安市城<在烏石山…世以此城爲唐太宗所親征不下者 陳嘉猷詩 城樓百尺拂晴雲 此地會聞駐六軍 翠輦不辭經險道 白袍屢見立奇勛…陳嘉猷 亦因國人之言而爲詩耳…>”

55) 『東文選』卷2 崔滋 「三都賦」, “西都之創先也 帝號東明”; 『三國遺事』卷1 紀異 1 高구려, “高句麗即卒牟扶餘也 或云 今和州又成州等 皆誤矣 卒牟州在遼東界”; 『帝王韻紀』卷下 高句麗紀, “麗祖姓高…諡東明…開國馬韓王儉城<今西京也>”; 『高麗史』卷56 志10 地理1, “惟我海東…自唐以來 以鴨綠爲限”

56) 예를 들면 金時習(1435~1493)은 안시성이 관서에 있다고 보았다. 『梅月堂集』卷9 「宕遊關西錄後志」, “入安市之城 隋唐攻戰之跡 依稀然慘烈…時天順戊寅秋” 그는 세조 4년(1458)에 관서 지방을 유람하며 「遊關西錄」을 지었다.

57) 예를 들면 정약용은 안시성으로 비정되는 곳이 네 군데라고 하였다. 『茶山詩文集』卷8 「對策」, “安市有三者…臣又按輿地書 謂龍岡縣亦有安市故城 以此言之 安市有四 不特三也”

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고려후기에 들어 원과의 관계 속에서 요동 지역에 대한 왕래가 빈번해졌다. 이에 이색은 요동 지역을 지나면서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였다. 그리고 정몽주와 이승인도 요동을 지나면서 당 태종과 안시성을 회고하였는데, 이들은 안시성을 개주에 있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원대에 편찬된 『요사』와 『금사』, 그리고 명이 편찬한 『원사』에서 안시성을 개주로 비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이어받은 『대명일통지』는 안시성이 개주 동북 70리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결국 고려후기에 요동의 개주에 있었다고 인식되던 안시성은 관찬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안도 용강현으로 비정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한 안시성 비정 오류는 조선시대 내내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 3. 태종의 눈 부상설에 대한 검토

안시성 전투를 기록한 『정관정요』, 『통전』, 『구당서』, 『책부원구』, 『자치통감』 등의 서적들은 고려시대에 유포되어 있었다. 특히 『자치통감』은 고려 명종 22년(1192)에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널리 읽혀지고 있었다.<sup>58)</sup> 따라서 고려의 지식인들은 안시성 전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목은 이색은 「정관음유림관작」(이하, 「정관음」으로 약칭함)이라는 시에서, “주머니

58) 『高麗史』 卷20 명종 22년(1192) 4월 壬子, “命吏部尙書鄭國儉 判秘書省事崔誥 集書筵諸儒於寶文閣 鑿校增續資治通鑑 分送州縣 雕印以進 分賜侍從儒臣” 『高麗史』 권30 忠烈王 12년(1286) 12월 庚子, “召國子司業崔雍 講通鑑”; 『高麗史節要』 권21 충렬왕 18년(1292) 10월, “帝召世子入寢殿 問曰 讀何書 奏云 讀通鑑 帝曰 歷代帝王 誰爲賢明 對曰 漢之高祖 唐之太宗 帝又問曰 漢祖唐宗 孰與寡人 對曰 臣年少 何足以知之”

속의 물건으로 여겼으나 눈이 백우전에 빠질 줄을 어찌 알았으랴”<sup>59)</sup>라고 하였다.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른바 ‘현화낙백우(玄花落白羽)’의 주장은 이색 외에는 언급한 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조선시대에 들어 당·고구려 전쟁과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는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전승되었다. 김종직(1431~1492)의 『청구풍아』(1473), 서거정(1420~1488)의 『동인시화』(1474)와 『필원잡기』(1487)에 「정관음」이 소개되어 있다. 내용이 자세한 『필원잡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정공 이색의 「정관음」에, “주머니 속의 물건으로 여겼으나 현화가 백우에 떨어질 줄을 어찌 알았으랴”라고 하였는데, 현화는 눈을 말하고 백우는 화살을 말한 것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적에 안시성에 이르러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당서』와 『통감』을 살펴보니 모두 실려 있지 않다. 다만 유공권의 소설에, “태종이 처음에 고연수와 고혜진이 발해의 군사를 인솔하고 40리를 포진하니 두려워하는 빛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역시 화살을 맞아 부상했다는 말은 없다. 나는 생각하기를, 당시에 비록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도 사관이 반드시 중국을 위하여 숨겼을 것이니 기록하지 않은 것은 괴이할 것이 없다. 다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목은 노인이 어떻게 이것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sup>60)</sup>

서거정은 이색의 「정관음」을 소개하고 ‘현화낙백우’설, 즉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는 것은 세전이라

59) 『牧隱詩藁』卷2 「貞觀吟 榆林關作」,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60) 『筆苑雜記』卷2, “李文靖公稽貞觀吟曰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玄花言其目 白羽言其箭 世傳 唐太宗伐高麗至安市城 箭中其目而還 考唐書通鑑 皆不載此事 但柳公權小說 太宗初見延壽惠真 率渤海軍 布陣四十里 有懼色 亦未有言其中傷者 居正意以謂 當時雖有此事 史官必爲中國諱 毋怪乎其不書也 但金富軾三國史 亦不載 未知牧老何從得此” 내용 중에 柳公權小說 부분과 ‘必爲中國諱’는 『三國史記』를 인용한 것이다.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8년 6월, “論曰…柳公權小說曰 駐蹕之役 高句麗與靺鞨合軍 方四十里 太宗望之 有懼色…新舊書及司馬公通鑑不言者 豈非爲國諱之者乎”

고 하였다. 이색이 「정관음」에서 언급한 ‘현화낙백우’설은 서거정이 ‘세전’이라 할 정도로 조선초기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후대에 심광세(1577~1624)<sup>61)</sup>, 이익(1681~1763)<sup>62)</sup>, 이덕무(1741~1793)<sup>63)</sup> 등 많은 이들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서거정은 ‘현화낙백우’설이 『당서』, 『통감』, 『삼국사기』 등 역사서에 실려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사관이 숨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서거정은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색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청구풍아』에는 이색이 유학 중에 얻은 소문이라고 추정하였다.<sup>64)</sup> 그러면 역사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색의 ‘현화낙백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역사서를 살펴보겠다.

⑤ 태종이 … 요동 정벌에서 돌아왔다. 태종이 병이 들자 유계가 크게 슬퍼하고 울며 말하기를 “질병이 이와 같으니 오직 성체가 염려스러울 뿐입니다.”고 하였다. 황문시랑 저수량이 유계가 다른 뜻이 있다고 모함하였다. … 태종은 병이 낫자 … 유계에게 사형을 내렸다.<sup>65)</sup>

⑥ 태종이 요동에서 돌아왔다. 정주를 떠났는데 도중에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유계가 울며 말하길, “옥체가 웅(臃)으로 아프시니 매우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저수량이 무고하여 아뢰기를, “유계가 국가의 일은 염려할 것이 없고 사부가 주인을 보좌하고 이·곽 고사의 고사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61) 『休翁集』 卷3 海東樂部 城上拜, “牧隱貞觀吟 玄花新逢白羽箭 諺傳太宗攻安市 流矢中目云 而中國史諱不直書固宜 三國史 亦不載 未知牧老何從得此言也”

62) 『星湖僊說』 卷5 萬物門 木弩千步, “唐太宗東征 為流矢所中目盲 史官諱之 故牧隱詩有誰知白羽落玄花之句 麗未必有其文字可考故云爾”

63) 『靑莊館全書』 卷32 清脾錄1 「唐太宗眇目」

64) 『靑丘風雅』 卷2 七言古詩,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太宗傷目之事 不出史傳 然公遊學中原 豈有所聞耶>”

65) 『大唐新語』 卷12 酷忍, “太宗征遼東 留侍中劉洎與高士廉馬周 輔太子於定州監國…征遼還 太宗有疾 洎從外至 因大悲泣曰 疾如此 獨可憂聖躬耳 黃門侍郎褚遂良 誣奏洎云…大臣有異志 誅之自然定矣 太宗疾愈 詔問其故 洎以實對 遂良執證之…遂賜洎死”

이는 대신의 몸으로서 다른 뜻을 품은 것이니 죽어 마땅합니다.”고 하였다. 태종이 병이 나은 뒤에 유계를 불러 그 까닭을 묻자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 태종은 마침내 유계에게 자진하도록 하였다.<sup>66)</sup>

⑦ 11월 … 임진일에 거가가 정주를 출발하였다. 12월 신축일에 상이 옹(癰)이 나서 보련을 타고 갔다. 무신일에 병주에 도착하였다. 태자가 상을 위해 옹을 입으로 빨았으며 가마를 붙들고 걸어서 따라가기를 며칠 동안 하였다. 신해일에 상의 병이 나아 백관이 모두 경하하였다.<sup>67)</sup>

태종이 1차 고구려 전쟁을 끝내고 요동에서 돌아오다가 병이 든 사실은 유숙의 『대당신어』(807)<sup>68)</sup>에 처음 등장한다(⑤). 『대당신어』는 고구려 정벌이 있었던 당 때의 기록임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태종의 질병은 유계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당서』(945)와 『자치통감』(1084)에 기록되어 있다. 『구당서』 「유계」전(⑥)에 따르면 태종은 요동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정주를 출발한 후 중기(臃)로 매우 아팠다고 한다. 『자치통감』에도 당 태종이 돌아오는 도중에 병이 든 사실을 기록하였다(⑦). 태종은 요수를 건너 임유관을 지나 11월 병술일에 정주에 도착하였고 임진일에 정주를 출발하였다. 12월 신축일에 중기가 났으며 태자가 상을 위해 옹을 입으로 빨았으며 신해일에

66) 『舊唐書』卷74 列傳24 劉洎, “(貞觀)十九年 太宗遼東還 發定州 在道不康…洎泣曰 聖體患臃 極可憂懼 遂良誣奏之曰 洎云 國家之事不足慮 正當傳少主行伊霍故事 大臣有異志者誅之 自然定矣 太宗疾愈 詔問其故 洎以實對…乃賜洎自盡”

67) 『資治通鑑』卷198 唐紀14 “貞觀…十九年…九月…癸未 敕班師…乙酉 至遼東 丙戌 渡遼水…冬十月…丙辰…入臨渝關 道逢太子…十一月辛未 車駕至幽州…丙戌 車駕至定州…壬辰 車駕發定州 十二月辛丑 上病臃 御步輦而行 戊申 至并州 太子爲上吮臃 扶輦步從者數日 辛亥 上疾瘳 百官皆賀…初 上留侍中劉洎輔皇太子于定州…及上不豫 洎從外出 色甚悲懼 謂同列曰 疾勢如此 聖躬可憂 或譖於上曰 洎言國家事不足憂 但當輔幼主 行伊霍故事 大臣有異志者 誅之自定矣 上以爲然 庚申 下詔 稱洎與人竊議 窺竊萬一 謀執朝衡 自處伊霍 猜忌大臣 皆欲夷戮 宜賜自盡”

68) 『大唐新語』自序, “元和丁亥”; 『新唐書』권58 藝文志, “劉肅 大唐新語 十三卷 元和中江都主簿”

병이 나왔다. 그런데 태종의 병문안 때의 일로 모함을 받아 유계는 죽음을 당하였다. 이상의 기록에서 보듯이 당 태종은 안시성 전투 중에 눈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귀환 도중에 종기(癰·腫)를 앓았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종기는 혈기가 막히고 찬 기운과 열기가 흩어지지 못할 때 음에 의해 양이 막히면 웅이 생기고, 양이 음에 의해 막히면 저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웅·저는 기가 몰려서 된 것으로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상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흔히 생긴다고 하였다.<sup>69)</sup> 웅저는 이미 끓었으면 고름을 빼내고 독기를 없애야 한다.<sup>70)</sup> 이에 태자는 태종의 고름을 입으로 제거하고 있다(⑦). 그런데 당 태종의 귀환 과정은 웅저가 생길만한 상황이었다.

9월 계미일에 회군을 명하였다. … 병술일에 요수를 건넜다. 10월 초하루 병신일에 포구에 이르렀고 … 발착수를 건넜다. 폭풍이 불고 눈이 내리니 병사들의 몸이 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 고구려를 정벌함에 … 상이 성공하지 못하자 깊이 후회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위징이 만약 있었다라면 나로 하여금 이번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병오일에 영주에 도착하였다. … 병진일에 임유관으로 들어갔다. 길에서 태자를 만났다. 태종이 정주를 출발할 때 입고 있는 갈포를 가리키며 태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볼 때까지 기다려 이 갈포를 바꾸어 입겠다.”고 하였다. 요동에 있으면서 비록 한창 무더위 땀을 흘려도 갈포를 바꾸어 입지 않았다. 가을이 되어 구멍이 뚫리고 헤어져 신하들이 갈아입기를 청하였다. … 이때에 태자가 새 옷을 올리니 마침내 갈아입었다.<sup>71)</sup>

69) 『東醫寶鑑』雜病篇7 癰疽, “癰者壅也 疽者沮也 血氣壅沮 寒熱不散 陰滯於陽 則發癰 陽滯於陰 則發疽 所發無定處也…凡鬱抑傷心 及久患消渴 必發癰疽丁瘡 宜慎之…憤鬱不遂志欲之人 多有此疾”

70) 『東醫寶鑑』雜病篇7 癰疽, “已潰則排膿斂毒 膿盡則去腐內塞惡 肉盡則生肌付痂 此定則也”

71) 『資治通鑑』卷198 唐紀14 太宗, “貞觀十九年…九月…癸未 敕班師…丙戌 渡遼水…冬十月丙申朔 上至蒲溝…渡渤海 暴風雪 士卒沾濕 多死者…凡征高麗…上以不能成功 深悔之 歎曰 魏徵若在 不使我有是行也…丙午 至營州…丙辰…入臨渝關 道逢太子 上之發定州也 指所御褐袍謂太子曰 俟見汝 乃易此袍耳 在遼左 雖盛暑流汗 弗之易 及秋 穿敗 左右請易之 上曰 軍士衣多弊 吾獨御新衣 可乎 至

당 태종은 안시성 함락에 실패하자 요동의 추위를 걱정하여 철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철수 중에 폭풍과 눈을 만났으며, 태종은 무더위 속에서도 전쟁을 독려하려는 의도에서 옷을 갈아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생도 좋지 못하였다. 그리고 태종은 정벌을 깊이 후회하였다. 이처럼 열악한 날씨, 불결한 위생 상태, 깊은 후회와 상심 등은 『동의보감』에서 지적한 용저의 원인들이다.

요컨대 당 태종이 안시성에 막혀 1차 고구려 전쟁을 끝내고 요동에서 돌아오다가 종기를 앓았던 사실은 『대당신어』, 『구당서』, 『자치통감』 등에 기록되어 있다. 태종의 질병은 유계가 죽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어서 태종이 종기를 앓았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즉 『구당서』, 『자치통감』을 통독한 고려 사람들은 태종이 종기를 앓았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서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색은 왜 ‘현화낙백우’라고 표현하였을까. 먼저 「정관음」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관음」 시는 원에 유학하던 이색이 잠시 고려로 귀국하는 길에 지은 것이다. 따라서 ‘현화낙백우’설은 원 유학 시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에 이색은 중국의 역사와 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약관 시절 연경의 대학에 유학할 때 글을 읽는 틈틈이 사방에서 온 동학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고향의 옛 성현 유적이거나 의관 풍속 및 산수 경치에 대해 묻곤 했는데 대답이 각각 같지 않았다. 혼자 생각하기를 다행히 과거에 급제하면 외직을 요청하거나 승차를 맡아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직접 밟아보고 눈으로 확인하여 평소의 뜻을 시원하게 풀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 늙으리라 마음먹었다.<sup>72)</sup>

是 太子進新衣 乃易之”

72) 『圃隱集』卷4 「書江南紀行詩藁後」, “予旣冠 游燕京壁水 絃誦之隙 與四方同舍 問其鄉里古聖賢之遺迹及其衣冠風俗山水景致 各各不同 默自計僥幸試中 當乞外

이색은 원에서 유학하면서 중국의 유적과 풍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 유학 중에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 「정관음」 시는 유학 시기 그가 가진 관심의 결과물인 것이다. 즉 요동을 통해 연경에 갔던 이색은 원의 여러 지방, 특히 요동 지역의 역사와 유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옛 영토인 요동에서 전승되고 있던 당 태종의 ‘현화낙백우’설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색의 「정관음」 시는 문학과 여행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즉 그 지역에서 회자되던 전설과 전언을 기록한 것은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전설과 사실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후대의 연행사에게도 해당되었다. 박세당(1629~1703)은 “도중에 경유하는 산천의 도로와 지명에 대해 왕래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퍼뜨린 것에 오류가 많아, 공이 중화의 옛 기록과 『대명일통지』를 고찰하고 모든 의심스러운 것들을 주민들에게 물어 많이 바로잡으니, 일행인 나이 든 역관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탄복하였다.”고 한다.<sup>73)</sup> 그리고 박지원(1737~1805)도, “내가 이제 지나온 산하는 다만 그 지방 사람들의 구전하는 말과, 또 길 가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였을 뿐더러 자주 다니는 우리 하인들에게 물어본 것이었는데, 대체로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것이어서 도무지 상세하지 않다. 화표주는 요동의 고적인데, 그나마 어떤 이는 성 안에 있다 하고 혹은 성 밖 10리에 있다 하니, 다른 것도 이를 미루어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sup>74)</sup>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역사적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세전(世傳)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화낙백우’설 또한 당 태종의 증기병에 대한 사실이 와전되어 요동 지역에서 회

補 或承差走四方 必足履目觀 然後快吾志 然後歸老于家”

73) 『西溪集』卷21 附錄 「諡狀」

74) 『熱河日記』盛京雜識 山川記略



자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이색은 역사서에 기록된 태종의 증기병 대신에 당시에 설화로 세전되던 ‘현화낙백우’설을 시의 소재로 삼았다. ‘현화낙백우’설은 태종의 고구려 정벌 실패, 즉 안시성 승리에 대한 아주 극적인 스토리텔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색이 ‘현화낙백우’설을 채택하고, 정몽주와 이숭인 등이 요동을 지나면서 안시성 전투와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을 회고한 것은 당시에 안시성 전투가 재조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몽골 전쟁을 겪으면서 안시성 전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조명되고 있었다. 황제에 오르기 전에 세조 쿠빌라이는 당 태종의 친정 실패를 언급하며 세자 원종의 알현을 기뻐하였다.<sup>75)</sup> 또한 충렬왕 17년(1291)에 고려가 합단에게 북계의 여러 성을 함락당하자 원의 세조는, “고려는 당 태종의 친정으로도 이기지 못하고 원도 쉽게 이기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들을 왜 그렇게도 무서워하는가?”라고 하였다.<sup>76)</sup> 그리고 지원 23년(1286)에 일본을 다시 정벌하는 문제에 대해 예부상서 유선은 당 태종이 고구려 친정을 후회하였다고 언급하며 정벌 불가를 주장하였다.<sup>77)</sup> 또한 전 통사사인 왕관과 이곡은 고려와 원의 현안을 두고 당 태종과 안시성의 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⑧ 유청신·오잠이 원에 글을 올려 고려에 성(省)을 설립하여 원의 내지와 같게 할 것을 청하였다. 원의 전 통사사인 왕관이 승상에게 글을 올리기를, “... 옛날

75) 『高麗史』 卷25 원종 원년 3월, “皇弟忽必烈 觀兵江南 王遂南轅問關 至梁楚之郊 皇弟適在襄陽 班師北上 王...奉幣迎謁道左...皇弟驚喜曰 高麗萬里之國 自唐太宗親征而不能服 今其世子 自來歸我 此天意也”

76) 『高麗史』 卷30 충렬왕 17년 2월 정해, “世子 令將軍吳仁永奏帝曰 哈丹陷北界諸城 帝曰 爾國 唐太宗親征 尙不克 又於我朝初 未歸附 我朝征之 亦未易捷 今此小寇 何畏之甚耶”

77) 『元史』 卷168 列傳55 劉宣, “至元...二十三年 入爲禮部尚書 遂遷吏部...及再征日本 宣又上言 其略曰...唐太宗 以英武自負 親征高麗 雖取數城而還 徒增追悔”

당 태종이 고구려를 쳐서 안시성까지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가 돌아올 때에 비단을 그 성주에게 내려 주어 왕을 충성으로 섬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태종과 고구려는 적국이었습니다. 온 천하의 힘으로도 한 개의 조그만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였건만, 군사를 상실하고 싸움에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의로써 권면한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조와 고려는 의로는 왕과 신하이며 친척으로는 사위와 장인입니다. 편안함도 위태로움도 슬픔도 같이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 ”고 하였다.<sup>78)</sup>

⑨ 원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동녀를 자주 요구하였으므로 이곡이 여사대에 제의하여 이것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원에 제출할 상소를 대신 작성하였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 … 고려는 본래 해외에 떨어져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서 중국에 성현 천자가 있지 않는 한 서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 태종의 위엄과 덕망으로도 두 번이나 침공하였으나 소득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국조(원)가 처음 일어났을 적에 고려는 맨 먼저 신복하여 공훈을 세웠습니다. 이에 세조황제께서 … 고려의 의관과 전례는 그들 조상의 풍속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풍속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79)</sup>

충숙왕 10년(1323) 정월에 이른바 입성 책동이 일어났을 때, 원의 왕관은 당 태종과 안시성의 일을 언급하며 이 일이 역사의 미담이라고 하였다. 왕관은 당 태종이 군사를 잃고 싸움에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안시성주에게 충의를 권면하였듯이 원과 고려도 편안함과 위태로움도 같이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관은 당과 고구려의 관계를 고려와 원의 관계로 치환하여 입성 불가를 주장하였다. 이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역사인식에서

78) 『高麗史節要』 卷24 충숙왕 10년 정월, “柳淸臣吳潛 上書于元 請立省比內地 元前通事舍人王觀 上書丞相曰…昔唐太宗 伐高麗 至安市城 攻之不下 師還 以束帛賜其城主 以勉事君 夫太宗之與高麗敵國也 以天下之力 攻一小城 不能拔 不以喪敗爲恥 仍以忠義相勉 書之史策 以爲美談 況聖朝之於本國 義則君臣 親則甥舅 安危休戚 靡不同之”

79) 『高麗史節要』 卷25 忠肅王 복위4년 윤12월, “典儀副令李穀在元 言於御史臺請罷求童女 爲代作疏曰…高麗本在海外 別作一國 苟非中國有聖人 邈然不與相通 以唐太宗之威德 再舉伐之 無功而還 國朝肇興 首先臣服 著勳王室 世祖皇帝釐降公主 仍賜詔書獎諭曰 衣冠典禮 無墜祖風 故其俗至于今不變” ; 『稼亭集』 권8 「代言官請罷取童女書<至元三年事得施行>」

나온 것이다.<sup>80)</sup> 그리고 이곡(1298~1351)은 당 태종이 침공하였으나 소득이 없이 돌아갔다고 하여 안시성 전투를 사례로 들며 고구려의 강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곡 역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고려는 해외의 독자적인 한 나라이며 원 세조의 뜻에 따라 고려의 고유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안시성 전투는 고려후기에 몽골·원의 관계 속에서 고려의 강성함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었다.

#### 4. 맺음말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사, 나아가 한국사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에 안시성의 위치와 그 성주로 알려진 양만춘에 대해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연구가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전 시기의 인식을 규명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안시성 위치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이래 많은 이견이 있었고, 당 태종의 눈 부상은 지금까지

80) 고려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주변국 역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인식하였다. 『高麗史』 卷2 태조 16년 3월 辛巳, “唐 遣王瓊楊昭業來冊王 詔曰…權知高麗國王事建…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 履箕子作蕃之跡 宜乃惠和”; 『高麗史』 卷8 문종 11년 3월 乙酉, “契丹遣蕭繼從王守拙 來冊王…冊曰…粵自襲爵朱蒙之國 宣風玄菟之鄉”; 『高麗圖經』 卷1 建國 始封, “高麗之先 蓋周武王 封箕子胥餘於朝鮮…夫餘王得河神之女 爲日所照 感孕而卵生 既長善射 俗稱善射爲朱蒙 因以名之…至紇升骨城而居 自號曰高句驪 因以高爲氏 而以高麗爲國…仲象子祚榮立…中宗時 乃置忽汗州 以祚榮爲都督渤海郡王 其後遂號渤海…高氏既絕 久而稍復 至唐末 遂王其國 後唐同光元年 遣使來朝…長興二年 王建權知國事 遣使入貢 遂受爵以有國云”; 『高麗圖經』 卷2 世次 王氏, “王氏之先 蓋高麗大族也 當高氏政衰 國人以建賢 遂共立爲君長”; 『東人之文四六』 卷3 金富弼, 「入金起居表」, “平壤封疆 恪守朱蒙之故國”

안시성 전투에 대한 대표적인 기억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안시성에 관한 두 가지 문제, 즉 안시성 위치에 대한 고려시대의 인식과 이색의 당 태종 눈 부상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정관정요』, 『통전』, 『구당서』, 『신당서』 및 『자치통감』 등의 중국 자료에 안시성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 이 서적들은 『삼국사기』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아마도 고려 사람들은 신라에서 전승된 자료와 중국 자료 등을 통해 안시성 전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관정요』에는 ‘요동안시성’이라 하여 안시성이 요동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전』에 대요수가 남쪽으로 흘러 안시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 두 책은 고려시대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의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고려시대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 동쪽 부근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안시성은 압록강 너머 요동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인과 고려인들은 갈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고려후기에 들어 원과의 관계 속에서 요동 지역에 대한 왕래가 빈번해졌다. 이에 이색은 요동 지역을 지나면서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였다. 그리고 정몽주와 이숭인도 개주를 지나면서 당 태종과 안시성을 회고하였는데, 이들은 안시성이 개주에 있었다고 이해하였다. 원대에 편찬된 『요사』와 『금사』, 그리고 명이 편찬한 『원사』에서 안시성을 개주로 비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정몽주와 이숭인 등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까지 요동 또는 개주에 있다고 인식되었던 안시성은 관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안도 용강현으로 비정되면서 이후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이색(1328~1396)이 「정관음」 시에 언급한 “현화낙백우

(玄化落白羽)”, 즉 안시성 전투에서 발생한 당 태종의 눈 부상설은 지금까지 안시성 전투에 대한 대표적인 기억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현화낙백우’설은 문학(시)이라는 측면에서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여러 사서에서는 태종이 요동에서 철수하던 도중 정주에 도착한 후에 종기를 앓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현화낙백우’설은 당 태종의 종기병에 대한 사실이 와전되어 고구려의 옛 영토인 요동에 유포되어 있었던 전설이었을 것이다. 이색이 역사 기록 대신에 전설을 수용하여 ‘현화낙백우’설을 시의 소재로 삼았던 것은 태종의 고구려 정벌 실패, 즉 안시성 승리에 대한 아주 극적인 스토리텔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후기의 이곡, 정몽주, 이숭인 등은 안시성 전투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목하였다. 이처럼 고려와 원의 관계 속에서 안시성 전투는 고려의 강성함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었다.

(원고투고일 : 2018. 10. 8, 심사수정일 : 2018. 11. 14, 게재확정일 : 2018. 11. 20)

주제어 : 고려, 고구려, 안시성, 당 태종, 이색, 정몽주, 요동(遼東), 개주(蓋州)

## 〈참 고 문 헌〉

- 『稼亭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陶隱集』, 『東醫寶鑑』, 『牧隱集』, 『三國史記』,  
『新曾東國輿地勝覽』, 『筆苑雜記』, 『圃隱集』
- 『舊唐書』, 『金史』, 『大唐新語』, 『大明一統志』, 『文獻通考』, 『新唐書』, 『遼史』,  
『元史』, 『資治通鑑』, 『貞觀政要』, 『冊府元龜』, 『通典』
- 오영섭, 「최승로 상서문의 사상적 기반과 역사적 의의」, 『태동고전연구』 10, 1993
- 김일경, 「安市城은 어디에 있는가?」, 『건축역사연구』 38, 2004 ;  
<http://uci.or.kr/G901:A-0001917505>
- 이승수, 「연행로상의 공간 탐색, 봉황산성 : 안시성설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103, 2006 ; <http://uci.or.kr/G901:A-0002236531>
- 金毓織, 동북아역사재단 옮김, 『東北通史』 하, 2007 ;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2\\_0537](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2_0537)
- 김낙기, 「17~19세기 고구려 안시성 인식과 상상배」, 『역사민속학』 42, 2013
- 이익주,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 ;  
<http://uci.or.kr/G901:A-0006437684>
- 김세호, 「연행을 통해 되살아난 안시성(安市城)과 梁萬春/楊萬春」, 『한문학보』 31, 2014 ;  
<http://uci.or.kr/I410-ECN-0102-2015-800-002171878>
- 남재철, 「安市城主의 姓名 '양만춘' 考證 1」, 『東아시아古代學』 35, 2014 ;  
<http://uci.or.kr/G901:A-0003622131>
- 서영교, 「馬躡山 전투와 安市城」, 『東國史學』 58, 2015
- 김영문 역, 『정관정요』, 글항아리, 2017 ; <http://uci.or.kr/G901:A-0007958104>

<Abstract>

## The Location recognition of Anshi Castle and Review of the rumor of Tang Taizong eye injury in the Goryeo Dynasty

Kim, Cheol-wong

The Battle of Anshi Castle has been talked about by many as an event that represents Korean history.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wo problems about Anshi Castle, the perception of the Goryeo period about the position of Anshi Castle and the rumor of the eye injury of Tang Taizong.

The Battle of Anshi Castle is recorded in Chinese documents such as *ZhenGuanzhengyao*(『貞觀政要』), *Tongdian*(『通典』) and *ZizhiTongjian*(『資治通鑑』). In the *ZhenGuanzhengyao*, the Anshi Castle was said to be in the Liaodong. In the *Tongdian*, there is Anshi on the south side of Daliaoshui(大遼水). By doing so, the people of Goryeo would have recognized that Anshi Castle was in the eastern part of Liaohe(遼河).

In the late Goryeo period Lee saek, Jeong mongju, and Lee sungin traveled through the Liaodong region to reminisce about the Battle of Anshi Castle. They understood that Anshi Castle was in Gaizhou(蓋州) of Liaodong region. *Liaoshi* and *Jinshi* compiled from the Yuan Dynasty, *Yuanshi* compiled from the Ming Dynasty recorded that Anshi Castle was in Gaizhou. However Anshi Castle, which was recognized as in the Liaodong until the Goryeo Dynasty, was officially recorded as Yonggang-Hyun by the *ShinjungDonggukRyujiSeunglam*. As a result this later led to confusion in Anshi Castle's

location.

On the other hand, the rumor of the eye injury of Tang Taizong is handed down as a representative memory of the battle of Anshi Castle. However, many librarians have recorded that Taizong leaved Liaodong and suffered from a boil after arriving in Dingzhou. Therefore, the rumor of the eye injury of Taizong is a misinterpretation of the fact that Taizong's disea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Mongol · Yuan, the battle of Anshi Castle was reinterpreted as a historical case of emphasizing the strength and independence of Goryeo. In response Lee saek, Jeong mongju, and Lee sungin pay attention the Battle of Anshi Castle as a historical event. This came from a historical recognition that Goryeo succeeded Goguryeo.

Key Words : Goyeo, Goguryeo, Anshi Castle, Tang Taizong, Lee saek, Jeong mongju, Liaodong, Gaizhou